

2017년 11월 5일 CPC 주일 예배 설교 카시와구라 히데요시 목사

설교본문 : 요한복음 3장 1절 - 8절

설교제목 : 성령의 바람으로 살아가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늘 저희 가족과 일본어 예배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합동예배에서 설교를 할 기회가 허락되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멜버른에 와서 3년째로 큰 불편없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중보 해 주시는 처의 허리 통증도 꽤 나아졌고, 아이들도 모두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일본어부는 올해로 창립 24년이라고 피터 장로님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을 일본어부를 위해서 지원과 기도를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불가사의한 계획에 의해서 저희는 이땅에 인도되어 오늘 이 캔터베리 장로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전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 부족함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배에 모인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맡겨 드리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구원 받은 간증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 저는 농업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 1년간 낙농과 포도재배에 대한 연수를 받았습니다.

농장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들은 멕시코, 브라질, 스위스, 포르투갈 등 모두 밝고 즐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일에 있어서는 그리 진중하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일에 오지 않는 날도 있고 오더라도 맘대로 일찍 마치고 중간에 집에 가는 사람도 자주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장의 연구소에서 같이 방을 쓰던 동료는 아침부터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출근하기도 해서 일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좋지 않은 행동을 자주 보여서 저는 참을 수 없어서 그를 발로 찬적도 있었습니다.

더이상 참을 수 없게 된 저는 농장의 책임자에게 상담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저에게 "사람을 한 쪽에서만 보고 그 사람을 나쁘다고 해 버리는 건 좋지 않아. 그들에게도 좋은 점이 있으니까."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의 그 말을 듣기 전까지 저는 "나는 농장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고 비난 받을 데가 없는 바른 사람이다" 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일본인의 기준에서 본 자기평가로 자신이 인정하는 바른 모습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일본인이나 멕시코인, 브라질인, 그리고 스위스와 포르투갈인, 미국인 등 에 대한 바른 모습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자신만의 바른 모습이 아닌 "보편적인 바름" 이란 무엇인가 라는 "진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농업 연수가 끝났을 때 책임자는 저에게 일본어 성경을 주었습니다. 그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저는 그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진리를 찾으려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귀국하려 할 때 친구가 갑자기 사고를 당했습니다. 친구도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는 그를 간병하기 위해 그가 다니고 있던 일본인 교회에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진리에 목 말라 있던 저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여러 의문에 대해서 목사님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쓰여있는 창조주 만이 하나님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 등을 깊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찾던 진정한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때 주변의 모든 것이 빛나게 보였습니다. 저는 세례를 받고 일본에 귀국 했습니다.

일본에 귀국한 후, 크리스찬이 된 저는 구원받은 기쁨에 넘쳐서 교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분들도 모두 상냥하고 천사 같았습니다.

하지만, 교회 생활을 하면 할 수록 처음에는 천사 같던 교회 분들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다투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언젠가부터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나쁜 마음으로 사람을 보는 구원받기 전과 다른없는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알고 죄를 회개하고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여전히 나쁜 마음을 가지는 자신이 있음을, 그런 죄성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을 알고 정말 우울해 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있으면 열 두 제자 중에도 같은 과제가 있던 걸 알게 되었습니다.

12 제자는 예수님 곁에서 여러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 조차도 그들의 관심은 "누가 가장 잘 낫는가" 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서로 돕고 일치해야 했었지만 각자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권력을 구했습니다.

그런 그들 이었지만 예수님이 부활 하신 후 성령님이 허락되어 놀랄만큼 변했습니다. 권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다 하기 위해 하나님을 음성을 들으며 서로 협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2 제자들은 성령님에 위해서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가 아니면 옛 사람이 얼굴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만 주장하고 다투고 비판하고 나쁜 생각이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변화가 있을 때 문제가 더욱 표면에 떠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건축, 수리, 정비 그리고 애찬, 목사초빙등 의견이 크게 나뉘어질 때 불필요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철저히 성령님으로 인하지 않으면 자신의 힘으로 옛 모습의 자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의 설교구절인 요한복음 3 장 1 절에서 8 절에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 절에서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5 절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셨습니다.

이 "물"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지만, "거룩한 물"이라는 뜻으로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 "거듭나지 않으면"이라는 수동태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깨끗해 지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거듭나지 않는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들어가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1 절을 보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유대교의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이었습니다. NIV 성경에 따르면 「a member of the Jewish ruling council」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최고 의회의 의원의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율법을 엄격하게, 숙지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는 선생님이라고 불리우는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2 절을 보면 "밤에 예수께 와서"라고 합니다.

요한 복음을 보면 "밤"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낮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시간대가 아닌, 밤,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는 때에 예수님께 왔다는 뜻 일 수 있습니다.

이 때 니고데모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라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엄격히 지키고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율법을 숙지하고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알고 있었는 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라고 말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나는 율법을 알고 있으나 어떻게 해야 당신처럼 하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를 알지 못합니다." 라는 생각이 담겨져 있는 것 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7-8 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것을 "놀랍게 여지기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바람"이라는 말은 "성령"과 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은 "성령"으로 예수님은 이 "성령의 바람"에 대해서 적어도 5 가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1. "성령의 바람"은 "임의"로 분다

"임의"라는 말은 누구에게도 제한 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곤란이나 어려운 상황에도 성령의 바람은 주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임의로 행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을 박해하던 바울에게 성령의 바람은 임의로 불어 그를 크리스찬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성령님에 대해서 멋대로 제한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2. "성령의 바람"은 쉬지않고 "분다"

"분다"는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기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령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 것을 오늘 어느정도 강하게 느끼고 있을까요? 또한 이 교회에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바람이 쉬지않고 불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3. "성령의 바람"은 "소리가 들린다"

교회 안에 변화가 있을 때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때 들어보지 못한 소리라고 해서 그 "소리"를 지우려 하는 것 보다 그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저희들은 어느 정도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소리"를 듣고 있는지요.

4. "성령의 바람"은 "어디에서 오는지 알 지 못한다"

세계 선교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유대 사마리아 온 땅 그리고 땅 끝까지 넓혀졌습니다. 그러나 그 것이 어떻게 지금의 우리에게 까지 왔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새로이 오신 분들도 어디에서 오셨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어디에서 온지 모르는 성령님이 보내 주시는 바람을 받아 들이기 위해서 충분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새신자가 왔는데 받아 들이는 저희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5. "성령의 바람"은 "어디로 갈 지 모른다"

인간적인 계획이나 계산은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처음부터 끝이 정해져 있어서 일을 진행해 갈 때 성령님이 가시려는 길을 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맡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바람을 느껴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의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 지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인해서 매일 새롭게 거듭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람 처럼 임의로 불어 소리를 내고 어디에선가 와서 새로운 곳에 인도해 주십니다. 저희들은 그 성령님의 사역에 눈을 두고 매일 새롭게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옛 사람이 다시 얼굴을 디밀고 니고데모처럼 형식적인 부분에 얽매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헤메는 부분이 나타날 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캔터베리 장로교회에 앞으로도 어떤 놀라운 계획을 허락하고 계신지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늘 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